

AUTHOR 허계형

TITLE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본 장애아 통합교육

IN 총신대논총

27집 (2007년): 312-333.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본 장애아 통합교육

허 계 형*

[목 차]

I. 서론	1. 창조를 통해 본 장애아 통합교육의 당위성
II.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	2. 타락과 장애의 상관관계성
1. 장애아 통합교육의 역사적 고찰	3. 구속을 통해 본 장애아 통합교육
2. 국내의 장애아 통합교육	IV. 결론 및 제안
III.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본 장애아 통합교육	

I. 서론

일반 유아교육 환경에서 일반유아와 장애유아가 함께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장애아 통합교육은 현대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장애아 교육방법으로, 국내외적으로 성공적 적용을 위한 법적, 사회적, 교육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의 효과 면에서도 비장애 유아와 장애유아 모두에게 교육적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당위성을 갖는다.¹⁾

* 유아교육과 교수

1) 교육적 측면에서도 통합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는 장애아 통합교육이 장애 유아의 사회성, 언어, 인지 발달에 효과적이며, 획득한 발달의 성과가 더욱 일반화되어 유용함을 나타내고 있다.) Bricker, D. A. *Rationale for the Integration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1978), 3-26. 특히 Odom과 McEvoy는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통합교육 현장에서 얻은 장애유아들의 교육성과는 적어도 분리교

이와 같은 장애아 통합교육의 실제 및 당위성은 일반 학문을 바탕으로 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구되어 왔으나, 개혁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장애아 통합교육은 매우 미비한 실정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의 장애아 통합교육이 더욱 현실성에 입각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개혁주의적이지 성경적 사상과 세계관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라는 다양한 시대사조가 군림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장애아 통합교육의 진정성에 근거한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세계관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정의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관이란 문자 그대로 '세계에 대한 조망'을 의미한다. 세계관이란 시각적 경험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총괄한 넓은 의미로서의 인식의 틀을 말한다. 세계관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첫째는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 (view of the world and life)를 의미한다면, 둘째는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 (view for the world and life)으로써 비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²⁾ 세계관은 공동체적 성격을

육에서 얻은 성과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 통합교육은 통합교육 환경의 일반 유아들에게도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이는 일반유아들의 자존감, 자신감, 다양성의 이해, 사회적 태도 면에서의 향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배려된 신중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에 의해 일반유아들의 발달과 행동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다. (Odom, S. L., & McEvoy, M. A. "Integration of young children with handicaps and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In S. Odom & M. B. Kames (Eds.), *Early Interven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with Handicaps: An Empirical Base*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1988), 241-267; Odom, S.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n Inclusive Programs in Early Child Care Setting*. 『제14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한국아동교육학회, 2006), 188-208; Diamond, K. & Innes, F. K. "The origin of young children's attitude toward peers with disabilities". In M. Garalnick(ed.), *Early Childhood Inclusion: Focus on change*(Baltimore, MD: Brookes, 2000), 159-177참고.

2) 신국원, 『니고테모의 안경』(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5), 27.

가점으로 한 사회와 국가, 민족, 문화의 방향성과 근원적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³⁾

세계관은 근본적 신념의 문제로 삶을 인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세계관 논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세계관이 어떠한 뿌리 또는 영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근본적 신념으로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집단적으로는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설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성경의 근본적 진리인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한 온전한 통합적 안목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이에 근거한 기독교 학문은 일반학문과 분리시켜 고찰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학문이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신앙과 통합된 학문 활동과 그 결과로서의 살름을 본질로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전학문적(Pre-theoretical) 삶의 조망이며 학문의 기초이다. 또한 세상과 인생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서 학문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신앙과 학문의 관계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며, 신앙은 학문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세계관은 일반 학문적 관점에서의 세계관과 다를 수도 혹은 일치할 수도 있다.⁵⁾ 어떠한 일반 학문이 진정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 이의 관점이 반드시 서로 달라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기독교 학문으로서의 진정성을 내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학자가 수행하는 일반학문(이 경우 장애아 통합교육)은 “내적 개혁”⁶⁾을 통해 기독교적 관점으로 분석되고, 사회 안에

3) 신국원,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와 전망”, 『총신대논총』 (서울: 총신대학교, 2004), 131.

4) 신국원, “다원주의 내의 기독교 학문의 정체성”, 『21세기와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대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논문집』(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14.

5) 기독교학문이 늘 반드시 비기독교 학문과 달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도적으로 다르기를 추구하기 보다는 진실하게 탁월한 학문성을 추구해야 한다. *Ibid.*, 14.

6) *Ibid.*, 20-26참고.

서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학문적(pre-theoretical) 삶의 조망이며 기독교 학자로서의 학문의 기초로서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제시하고, 둘째로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개혁주의 세계관의 틀에 입각하여 장애아 이들의 사회적 통합교육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며, 끝으로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

1. 장애아 통합교육의 역사적 고찰

현대에 있어 일반유아교육환경에서 일반유아와 장애유아를 함께 교육하는 것을 의미⁷⁾하는 장애아 통합교육은 가장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장애아 교육 프로그램이다.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철학적 배경은 20세기 중반 북유럽에서 시작된 ‘정상화’(normalization)원리⁸⁾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상화 원리에서 ‘정상화’란 인간이 정상적인 행동과 그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철학적 신념으로, 이를 장애인의 삶에 적용하여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해 그들의 생활 환경, 학습환경, 근로환경 등의 사회적환경을 가급적 정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론이다.⁸⁾ 정상화 개념은 장애인이 가능한 한 일반인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범위나 영역을 극대화 시키려는

7) 장애아 통합교육이란 용어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 교육철학,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 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일반교육현장에서 일반유아와 장애유아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8) 김정권의, “통합교육의 역사적 배경”, 『달산업사회와 특수교육』(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2002), 146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장애인들의 탈수용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수용과 같은 사회적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다.⁹⁾ '탈수용 시설화'는 정상화 원리의 확산에 의한 결과이자 수용시설 내부의 비인간적인 조건에 대한 부모와 정신지체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의하여 제기되어, 장애인을 분리된 시설에 수용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초기 '시민 권리운동'¹¹⁾의 초석이 됨으로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권리 및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장애아 통합교육은 가능한 '정상적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반인과 동일한 인간으로 인권을 존중 받고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인간존중과 사회 정의 실현의 이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장애아통합교육은 (성경적 근거에서 시작된 개념이기 보다는) 인간중심주의(Humanism)이자 이성 본위(Reason Centered)의 철학에서 시작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 국내의 장애아 통합교육

국내에서의 장애아 통합교육의 역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먼저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 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포함시켜 교육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

9) 윤점룡의, "통합교육의 이론적 배경", 『장애학생의 이해와 교육』(서울:학지사, 2005), 47.

10) ibid, 49.

11) 사회적 소수 집단(예, 백인에 대해 흑인,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시민권 쟁취운동

나 특수교육 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준한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 또한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¹²⁾ 보다 최근에 제정된 특수교육법¹³⁾에서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 한다"로 정하여 1994년의 정의보다는 사회적 통합에 가까운 정의를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5)의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학생들은 주로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2005년 현재는 각각 5110, 29803, 23,449로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적다.¹⁴⁾ 그러나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배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의 수가 각각 2304(4.3%), 3610(6.5%), 5110(8.7%)로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¹⁵⁾ 또한 교육부에서는 일반 유치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일반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5세 장애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 대상에 발달지체 유아까지 포함하도록 행정지침을 제시하였다.¹⁶⁾ 최근의 정책으로 2007년 10월 현재 공청회 단계에 있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12) 각각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6항, 15조 1항, 15조 2항임.

13)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로 제정되고, 2008년 5월 26일 시행 예정인 법으로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이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된다.

14) 이소현 & 박은혜, "특수교육의 이해", 『특수아동교육』(서울:학지사, 2006), 28 재인용.

15) ibid, 29.

16) 교육인적자원부, 『장애학생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대상 유아 유치원 확대 계획(안)』, 2005. 무상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인적 자원부는 2005년에 1500명(3600백만원), 2006년에 2000명(4800백만원), 2007년에 3000명(7200백만원)등으로 점차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확인¹⁷⁾에서도 장애아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국내 유아교육계에서 장애아 통합교육의 위치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장애아 통합교육은 장애아 교육에 있어서는 매우 일반적이고도 보편적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에서 살펴본 일반적 장애아 통합교육은 성경적 관점에서 근거된 것이기 보다는 인간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인간존중과 사회 정의 구현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여 진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적 차원에서의 개혁주의적 방법론과 세계관을 통하여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제 문제제기에 근거하여 다음으로는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개혁주의 세계관의 틀에 입각하여 장애와 이들의 사회적 통합교육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III. 개혁주의적 세계관으로 본 장애아 통합교육

1. 창조를 통해 본 장애아 통합교육의 당위성

개혁주의 세계관은 무엇보다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확 무오한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창조의 원리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인간의 문화적 사명을 알려준다. 성경은 모든 것이 그의 기쁘신 뜻에 의해 선하게 창조되었으며, 모두가 그에게 속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인간은 문화의 사역자 및 명령수역자로 창조되었고 문화적 활동을 통해 세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인간 창조론은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17)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향후 5개년 전반적 유아교육 분야의 계획안으로, 이는 쾌적한 학습 환경과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환경 그리고 최적의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음을 여실히 상기시켜주고 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에게 수여한 문화명령(Culture Mandate, Culture Commandment)에 대한 전형적인 구절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과 속성 그리고 문화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26-28).

위 성경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증거함을 명시하는 구절로서, 개혁주의 신학의 인간론 및 문화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된다.¹⁸⁾ 비록 학계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은 매우 다양하지만¹⁹⁾, 창 1장 27절, 2장 15절은 모든 인간 - 남녀노소 및 장애인 - 을 향하여 주신 인간의 본질성과 문화적 명령을 선언한 구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하고도

18) 이회능,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에 관한 기독교적 접근", 『기독교교육정보』 9권, (2004), 121.

19) 첫째는 "아담을 만드시되 신체 건강한 남자로 만드셨다"는 부분을 유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신체 건강한 남자로 보는 견해로 이는 어린이, 노인, 여성을 포함한 장애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지 않는 오류가 있다.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신적'으로 보는 견해로, 이는 지능이란 개념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달랐을 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가 전 생애 가운데 변화함에 따라 적절히 않다. 이에 따르면 정신지체 장애인은 열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고, 어린이나 학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에 따라 차별을 받는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소유한 한 인격체로서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성경이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²⁰⁾

이회능은 장애아가 하나님의 형상이자 모양에 따라 지음 받은 존재임을 성경적으로 논증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린도후서 4:4)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자니”(골로새서 1:15)라고 제시하였다.²¹⁾ 그는 주장하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성육신(Incarnation) 사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계시해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현현으로서 도성 인신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애아 개념을 통해 성경적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장애아에 대한 태도와 성경전체의 정신은 4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특히 소외받는 자들²²⁾,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보았으며, 그들의 인격적 권리와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동참하는 영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셨으며, 그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심을 볼 수 있다.

20) 백은령,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개선을 위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방안”, 『총신대논총』, 제26집 (서울: 총신대학교출판사, 2006), 260-290.

21) 이회능,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에 관한 기독교적 접근”, 121.

22) “내 형제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약2:1)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상16:7)을 통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외모로 즉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심을 의미하며, 이는 심신의 장애등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여 차별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성경은 세상에서 소외된 장애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의 소외된 집단과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실질적 필요를 채워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장애에 대한 창조론적 가치관은 결국 장애아 통합교육의 가능성과 당위성 그리고 필요성을 공급해주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²³⁾

2. 타락과 장애의 상관관계성

타락 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모두 죄 아래 굴복함으로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²⁴⁾ 이 타락의 범위는 우주적이며 범세계적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관계성이 전면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타락의 결과이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인간도 타락의 결과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²⁵⁾ 타락의 결과로 흔히 나타나는 사회의 병리적 현상들은 각종 범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가정의 파괴, 천박한 예술작품과 음악, 탐욕 등을 들 수 있다.²⁶⁾ 이외에도 인간 사이의 단절과 소외, 차별, 가치 절하, 편견, 무시와 같은 현상 등을 들 수 있다.²⁷⁾

23) 손병덕, “장애아 통합교육의 기독교적 조명”, 『제9회 총신 유아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총신유아교육 연구회, 2004), 23-24.

24) 창3:17-19; 롬8:20-23; 고전15:21, 22.

25)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39.

26) 정희영, 『기독교유아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0), 57

27) 백은령,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개선을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방안”, 279.

(1) 타락과 장애발생

타락과 장애의 관계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요구되는 질문은 과연 장애가 타락후 인간에게 임한 죄의 결과인가? 라는 것이다. 장애의 개념은 사회, 문화, 역사, 시대와 같은 사회 문화적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애에 대하여 꺼리고 터부시하여 무시, 방치, 분리하는 행위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²⁸⁾ 불교에 있어서 장애는 전생의 죄로 인한 결과로 치부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결과임으로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죄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이를 개인이나 부모 등 누구의 죄나 잘못으로 귀착시키는 태도는 성경적인 입장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소경이 소경되는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확고 부동한 선언적 명령을 선포하셨다.

성경에서는 장애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나타난 많은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임을 나타낸다.²⁹⁾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환경의 제한성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시간적 제한성은 인간에게 죽음 및 장애를 가져다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시간의 제한성이란 인간이 죄로 인해 제한된 시간동안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며, 죽음을 의미한다. 또한 죽음을 향한 노화과정을 거치면서 장애를 비롯한 많은 질병을 초래하기도 한다.³⁰⁾

28) 이는 인간의 본성이 회복이 되기 전 선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앙셀름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중립적이라는 의견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인간이 악을 행함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장애인의 분리 소외 현상은 타락으로 인한 인간들의 속성을 증거 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29) 창3:17-19; 롬8:20-23; 고전15:21, 22.

30) 장애요인 중 절대 다수는 후천적 요인이고, 이 가운데 질병에 의한 것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한다(백은령,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개선을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방안”, 277).

결국 로마서 기자가 지적한 바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고 제시한 바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한 형태로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장애발생의 원인을 어떠한 개인이나 부모의 죄라고 해석하여 이들을 분리하고 격리하는 준거로써 활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인간이 갖는 시간의 제한성(즉, 죽는다는 사실)을 인간 사이의 차별 이유로 들지 않듯이 장애를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결과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2) 타락과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

타락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단절과 소외를 초래하고,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죄의 영향은 장애아에 대한 편견과 인격적 성향을 평가절하하게 만들었고,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을 사회에서 분리하고, 무시하며, 방치하도록 만들었다.³¹⁾ 이에 대한 실례들은 장애아 교육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장애아교육 즉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의 역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 장애아 통합교육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통합교육 이전 시기의 장애인들은 수용시설에 분리되어 교육받아왔으며, 1800년대 전반의 수용시설의 수용목적은 “비정상적” 개개인들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1800년대 후반 부에는 앞서 수용시설에서 제공하고자 하였던 교육이나 치료의 목적마저 상실되었다. 이들은 오직 수용 장애인들을 “영구한 저장수용”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의 주거시설에 방치하였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경우 정신지체인들)을 “고쳐질 수 없는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³²⁾

31) 백은령,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개선을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방안”, 279.

32) Bricker, D., Pretti-Frontczak, K., & McComas, N. *An Activity-based Approach to Early Intervention* (2nd edit). (Baltimore: Paul Brookes, 1998), 253.

그 당시 격리된 장애인들은 한 인격체로서의 대접을 완전히 몰수당하고 때로는 성적 도구로 또는 짐승과 같이 취급을 받았으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였다.³³⁾ 장애인들은 때로는 동정의 대상으로, 때로는 공포 및 불안의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장애유아의 경우는 태어난 직후에 빈번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했다.³⁴⁾

수용시설의 열악함과 이에 따른 장애인들의 비참함이 극에 달함에 따라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게 되었다. 점차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 운동으로서 대두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의 가능성 그리고 방법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³⁵⁾

3. 구속을 통해 본 장애아 통합교육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회복의 열쇠를 쥐고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이자, 구속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주, 메시아로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성부와 인간 사이의 관계성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객관적이며 대리적인 구속을 의미한다.³⁶⁾

33) Wolfensberger, W. "The origin and nature of our institutional models." In R. Kugel & W. Wolfensberger(Eds.), *Changing patterns in residential services for the mentally retarded* (Washington, DC: President's Committee on Mental Retardation, 1969), 59-72.

34) Ibid.

35) 통합교육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통합교육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 중반의 최소제한적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의 개념으로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시작하였고, 1980년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Inclusion'과 같은 일반 유치원 현장에서의 통합개념은 1990년에 들어오면서 부터이다. 이소현,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이론적 배경", 『유아특수교육』, (서울: 학지사, 2003), 501.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구속은 타락으로 인해 창조가 왜곡된 방향을 바로 잡음이며 회복을 의미한다. 이는 에덴동산³⁷⁾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창조의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회복을 뜻한다. 구속은 타락한 세상 속에 강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였으며, 그 구원 역사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이다.³⁸⁾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제시하는 구속의 진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우리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는 성령의 사역에 관한 것이며, 구속은 본래타락 전 선한 상태로의 회복과 새롭게 됨을 의미한다.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은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전적 화목을 의미한다.

장애아 통합교육의 교육이념은 성경의 구속적 진리 가운데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³⁹⁾ 이에 대한 증거를 신구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장애아가 비장애아와 동일하게 구속과 소망의 대상임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 복음서에 기록된 장애인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당시의 사회적 편견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장애인이 율법에 의해 부정된 존재로 정죄될 수 없음을 선포하였고, 장애인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우선적으로 초청했으며,⁴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 하는 도구로 선택되었

36) 윤중훈, "칼빈주의 세계관과 문화명령에 관한 개혁주의적 소고-창조, 타락, 구속(완성)을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25권, 275.

37)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장애에 대한 기록은 구약 89회, 신약 74회 등 총 163회에 걸쳐서 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구약에서는 시각 장애에 관한 기록이 47회나 나타나있고, 지체장애의 경우는 27회 그리고 청각장애는 15회 정도 등장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청각장애에 관한 기록이 9회 등장하며, 시각장애는 33회 그리고 지체장애의 경우는 32회나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계윤,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특수교육연구소, 1996), 55-56.

38) 신국원,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와 전망"을 참조할 것.

39) 김은경, "교회학교 통합교육 모형 연구", 『부산장신논총』, 창간호, 160-162.

40) 눅8:39.

음을 제시한다.⁴¹⁾ 예수님은 장애의 숙명적인 저주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켰고, 육체와 영혼을 소생시켜 주었으며,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살 가치와 목표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던 사회에 복귀시키셨다.⁴²⁾

예수그리스도는 장애인들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존중하였다. 그리스도는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깨뜨리고 하나의 공동체의 한 지체와 한 요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가도록 가르치셨다.⁴³⁾ 성경은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분리하지 않았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같은 지체로서 어느 부분에서도 장애를 지녔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구조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논증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28절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과 지체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함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어린이, 건강한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등—이 모두 한 몸이며 한 성령으로 하나의 세례를 받은 한 지체임을 나타낸다.

국내의 사회 전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회복운동에 대한 노력들이 수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인격성과 인간존중 및 평등성에 입각한 인간성의 회복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장애아에 대한 인격성존중 운동은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겠다.

첫째로 UN 인권 위원회의 장애인 권리선언을 들 수 있는데, 이 선언에서는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및 그 정도에 상관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⁴⁴⁾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평등함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함을 분명시키고 있다.

둘째로,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한 장애 용어의 변천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령, ‘절름발이’, ‘봉사’, ‘바보’, ‘천치’ 등 반인권적인 용어 사용을 폐지하고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등의 장애아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을 칭하는 영어의 용어 변천과정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이전에 장애인을 ‘Handicapped Person’ 혹은 ‘disabled Person’로 표기함으로써 인격보다는 장애상태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근세에 들어서자 장애인에 대한 영어적 표현이 ‘People with disabilities’와 같이 구사함으로써 장애보다는 인격성을 강조코자 하였으며, 특수교육 학술단체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인격성을 보다 표명화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다.⁴⁵⁾ 또한 근자에 이르러서는 모든 인간들의 성향이 다양함같이 장애인 또한 다양한 사람들 중의 한 인격체임을 강조하는 ‘Person with different abilit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함을 볼 수 있다.

셋째로, 통합교육을 칭하는 용어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류화(Mainstreaming) 개념은 장애아를 가능한 일반유아의 생활흐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의 ‘주류’는 일반아동을 의미한다. 또 다른 통합교육을 의미하는 ‘Integration’과 ‘Inclusion’은 두 유형 모두 한국어로는 통합교육으로 동일하나,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에서 Integration은 이미 분리되어져 있었던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적에 따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Inclusion은 원래부터 한 개체의 요소로서 이미 통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⁴⁶⁾ Inclusion은 Integration이 갖는 개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41) 눅 14:13; 신27:18; 사35:5

42) 마1:32-34, 8:5-7, 20:29-34; 눅5:12-13, 6:6-10

43) 김은경, “교회학교 통합교육 모형 연구”, 159.

44) UN인권 위원회, 『인권과 장애』, 이용섭 역, (한국 DPI, 1992), 41. 본 결의는 1975년12월 19일 UN총회 제 30차에서 결의(3447)

45)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과 같은 유아특수교육의 대표 학술지에서는 부적절한 표기 (즉 disabled people과 같은 장애 우선 용어)를 사용할 경우, 투고논문의 질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하지 않는 규정을 제시함.

46) 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의 개념”,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입문 통합교육』, (서울:학지사, 2005), 19.

제시된 용어로 한 구성원으로서 일반 환경의 모든 유아들이 다른 것과 같이 유아의 다름을 수용하고,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하여 모든 발달수준의 유아들이 적절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설정하고 형성해감에 있어서 개념을 확고히 정립함은 그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개혁주의적이자 성경주의에 입각한 개념을 설정하는 일은 매우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개혁주의적 세계관에서 이해하는 장애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의해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유아와 구별되거나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아 통합교육은 통합교육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 가운데 'inclusion'이라는 '포함식의 통합교육'과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Inclusion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 12절-28절⁴⁸⁾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구조상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분리하지 않고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또한 다양한 구성원중의 한 인격체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포함식 통합교육(Inclusion)은 앞서 제시한 '한 몸으로서의 다양한 지체'의 연장으로서 장애아의 개별성을 강조한다. 개혁주의 관점의 장애아 통합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이 의미하는 개념을 보다 확고하게 재확립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개념의 정립과 함께 실제적인 장애 이해를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7) 미국 특수교육협회 조기교육분과(DEC)의 통합교육 성명서에서 제시한 통합교육의 정의에서도 inclusion으로서의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바를 볼 수 있다. "통합(inclusion)은 하나의 가치로서 아동이 지니고 있는 수준과는 무관하게 이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내의 자연적인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모든 아동들의 권리를 지원한다"

48)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로 노인, 어린이, 건강한 자, 약한 자, 부자, 가난한 자가 모두 하나의 성령으로 세례 받음을 나타낸다(고린도전서 12장 12-28).

IV. 결론 및 제안

상기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장애아 통합교육의 기본 이념과 방향은 개혁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실시될 때에야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다. 본고는 장애아 교육의 보편성과 실제성에 입각한 '장애아 통합교육'을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개혁주의 세계관 틀에 입각하여 장애아와 이들의 사회적 통합교육의 정체성을 조명하였다. 또한 개혁주의 관점의 통합교육 개념을 재정립하고 실천적인 안목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 통합교육은 성경적 지지와 배경적 근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하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소유한 한 인격체로서의 장애아는 비장애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소외된 집단과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가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다.

둘째, 성경에서는 장애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나타난 많은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를 가져오지만 이를 개인이나 부모 등 누구의 죄나 잘못으로 귀착시키는 태도는 성경적인 입장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성경은 구속적 차원에 있어서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이념을 제공한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같은 지체로서 어느 부분에도 장애를 지녔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구조에서 분리되어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장애아 또는 비장애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있는 객체로서 구속적 소망과 영원히 누릴 영생을 사모함에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성경에서 제시하는 통합교육은 다양한 '통합'의 의미 가운데 'inclusion'을 의미함으로써, '한 몸으로서의 다양한 지체'의 연장으로써 장애아의 개별성을 강조한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장애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의해 창조된 소중한 존재로 유아교육현장 속에서 다양한 발달수준과 특성을 지닌 유아들의 하나로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상기한 요약 및 결론에 근거하여 부르멜론이 제시한 기독교적 교육을 위한 주요 3기관(즉, 교회, 학교, 가정)⁴⁹⁾ 가운데 교회와 학교(즉, 목회자 양성 대학과 장애아 통합교육 교사 양성 대학)측면을 강조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교회 내에서의 장애아 통합교육의 인식에 대한 교육

장애와 관련된 연구들은 한국교회의 장애아관련 문제에 대해 현실의 일반 교회 안에서 장애인 성도가 거의 없고, 교회 건축물에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는 교회는 제한적이며,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애인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 한국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과 차별의 실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적한다.⁵⁰⁾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홍승영은 교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들었다.⁵¹⁾ 즉, 교인들은 장애인 예배를 전도나 교제, 그리고 예배와 같이 교회의 당연한 사명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들과의 통합 예배에 대한 당위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금섭 외의 여러 학자들은 교회가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며 무력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장애인 분야에 대한 교역자 또는 목회자의

49) 해로 반 부르멜론 저 기학연 교육연구모임 역,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기독교적 교수 학습방법』(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15.

50) 정부자,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역할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참고.

51) 홍승영, "교회학교 교실에서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육과정 설계"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

일반적인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소극성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목회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⁵²⁾ 이에 따라 교회가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아 통합교육 및 예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관점에서의 장애 이해 학습과 함께 다각적인 면에서의 편견 타파를 위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일반교인들을 위한 성경 분과 공부에 성경적 관점의 장애관과 통합교육의 개념을 포함 시킴으로 한 몸의 지체로서의 장애인 통합교육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목회자들의 장애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인식을 위해 목회자 양성 과정에 개혁주의적 관점의 장애이해와 장애아 통합을 위한 실재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⁵³⁾ 덧붙여, 현직의 목회자 훈련(in-service training) 과정에 이의 중요성을 포함시키고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현 교회 안에서의 장애아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2.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비한 통합 유아교사 양성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성공적인 장애아 통합교육은 장애유아 및 일반 유아의 인식, 인식과 기술면에서 준비된 교사, 법과 제도적 측면, 장애를 인식하는 사회 및 문화적 측면의 준비와 아울러 이들의 요소들이 서로 조화

52) 이금섭외, "목회자양성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6권, (2005), 297-313.

53) Ibid, 297-313 참고.

54) Bricker, D., Pretti- Frontczak, K., & McComas, N. *An Activity-based Intervention to Early Intervention*; Odom, S., Schwartz, I.S., & EricII investigators, "So how do we know from all this? Synthesus points of research on preschool inclusion", In S. L. Odom(Ed.), *Widening the circle: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preschool programs*.(New York:Teacher College Press, 2002); Odom, S., & Speltz, M. "Program variations in preschools for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Mainstreamed vs. integrated special education, *Analysis and Intervention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83), 3(1), 89-103 참고.

되고 활성화되었을 때 가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⁵⁴⁾ 이 가운데 교사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긍정적인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교사들이 갖는 태도나 기대, 능력, 협력을 위한 기술, 교사 간 지원 능력 등은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실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⁵⁵⁾ 연구결과들은 교사의 인식, 태도, 기술의 준비정도가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한 큰 변인으로 작용되었음을 입증한다.⁵⁶⁾

일반적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특히 교사준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사양성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유아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장애아 통합교육을 위한 준비는 매우 미비하다. 대부분의 국내 유아교육과는 1 혹은 2개의 장애아 관련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은 교사가 효과적인 통합교육 현장을 교수하기 위한 훈련과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통합현장 및 일반 유아교육 현장의 유아교사들은 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였지만, 실제적인 수행에는 어려움을 나타내었다.⁵⁷⁾

유아교사 특히 개혁주의적 세계관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직전교육 과정은 준비된 장애아 통합교육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신 소명에 입각하여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측면의 방법과 전략이 개발되어

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개혁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장애아 통합교육 교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개발 및 현직 통합교육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55) Mastropieri, M. A. & Scruggs, T. E. "Promoting inclusion in secondary classrooms",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24, (2001), 265-274.; Salend, S. J. "Facilitating friendships among diverse students."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35, (1999), 9-15; 이소현 & 박은혜, "통합교육의 발전 방향", 『특수아동교육』, (2006), 34-76. 재인용.

56) 이소현, "유치원 교사양성 교수들의 장애유아 통합에 관한 인식 조사 연구", 『특수교육논총』, 12권, (1995), 37-60참고.

57) 서울시보육센터, 『서울시장장애아보육지원 시범사업 보고서』(2007) (서울:서울시보육센터, 2007) 참고.